

## HEADLINE NEWS

### 「발코니 정원」을 조성하여 전원 도시 이미지 강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기존의 개발밀도 규정을 완화하여 주거용 건물에 발코니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들이 발코니에 소규모 정원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전원도시(Garden City)'라는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법규는 발코니도 건물연상면적에 포함, 용적률을 계산할 때 발코니도 들어가도록 했으나, 최근에 개정된 법규는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 허용된 최대용적률의 10%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할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할증된 용적률은 발코니의 설치에만 한정되며, 장래 재건축시에는 할증 용적률이 소멸된다. 아울러 발코니가 공중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2면 이상을 개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코니 정원」 조성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빨래 건조나 설비 시설을 포함하는 발코니는 용적률 할증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www.ura.gov.sg/pr/text/pr29.html](http://www.ura.gov.sg/pr/text/pr29.html))

## HIGHLIGHTS

### 도시관리

- 1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 「꿈의 공원」 조성 (일본 : 카와사키市)

### 도시환경

- 2 경유자동차가 시민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78% 배출 (샌프란시스코)
- 3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소비효율 증진프로그램 추진 (샌프란시스코)
- 4 환경친화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생태환경정비계획 수립 (중국 : 길림성)
- 5 환경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학습센터」 관람객 100만명 돌파 (오사카)

### 도시교통

- 6 IT를 이용해 버스승객서비스 강화 (동경)
- 7 자전거이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자전거친화 기업賞」 수여 (토론토)
- 8 자전거이용 장려 위해 무료대여 시행 (프린스턴)

### 행.재정

- 9 젊은 층의 市政쇄신의견 수렴 위해 「리노베이션팀」 설치 (일본 : 기후市)
- 10 영화촬영 지원하는 「동경 로케이션 박스」 개설 (동경)
- 11 공공시설 순회 「동전 한눈 버스」 운행 (일본 : 아이치縣 한도시)

### 사회복지

- 12 「청소년주간」 행사 개최 (뉴욕)
- 13 서울의 사무실 임대료 '세계 9위' 기록 (서울)
- 14 오토바이 폭주족 현장검거 위해 「대책실」 설치 (일본 : 기후縣)

### 1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 「꿈의 공원」 조성 (일본 : 카와사키市)

일본 카와사키(川崎)시는 광장이나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원의 기본 골격만 정하고, 나머지는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면서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아이들의 꿈의 공원」의 기본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최근 市가 실시한 조사 결과, 아이들은 스포츠시설, 옥외활동공간, 동·식물원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市는 향후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꿈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 7. 14)

### 2 경유자동차가 시민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78% 배출 (샌프란시스코)

미국 환경청(EPA)은 최근 '실외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 대기오염 물질의 약 78%는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市의 경우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시민의 추가 발암 확률이 1백만명당 2,600명 수준이며, 이 중 90%의 위험요소는 주로 트럭과 버스, 불도저 등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청은 앞으로 경유의 황 함량을 최저수준으로 낮추는 청정연료 (ultra-low-sulfur diesel)의 공급, 먼지·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여과장치의 부착, 엔진 개량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ns.lycos.com/ens/jul2001/2001L-07-12-09.html](http://ens.lycos.com/ens/jul2001/2001L-07-12-09.html))

### ③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소비효율 증진프로그램 추진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환경국은 캘리포니아州 정부로부터 8백만 달러를 제공 받아 소규모 기업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저비용으로 교체해 주고, 과학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효율을 위한 투자비의 제약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市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중 산업부분이 약 65%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중 1/3이 소규모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향후 18개월 동안 약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될 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2천4백만 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12,000명의 시민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www.sfgov.org/sfenvironment/pages/sup\\_pages/press\\_releases/pr071101\(...01\\_01\\_16\)](http://www.sfgov.org/sfenvironment/pages/sup_pages/press_releases/pr071101(...01_01_16)))

### ④ 환경친화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생태환경정비계획」 수립 (중국 : 길림성)

중국 길림성(吉林省)은 「길림성 생태환경정비에 관한 전체계획 강요(綱要)」를 중국 과학원과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28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길림성은 海南省에 이어 중국에서 2번째로 '생태건설 시범성(省)'으로 지정되었다.

길림성은 이 계획을 통해 향후 30년간 환경을 고려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시스템의 골격 만들기(2000~2005년), 환경친화적 자원 활용, 생태환경 도시군을 특징으로 하는 생태산업 대성(大省)으로서 내실을 꾀하는 발전기(2006~2015년), 환경친화적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 대성(大省) 건설을 목표로 하는 향상기(2016~2030년)의 3개 단계로 구분, 실시될 예정이다. (人民日報, 4. 30)

### 5] 환경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학습센터」 관람객 100만명 돌파 (오사카)

일본 오사카(大阪)에 있는 「환경학습센터(생기 넘치는 지구관)」가 1997년 4월 개장된 이래 지난 4월 22일자로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환경학습센터(생기 넘치는 지구관)」는 시민들이 즐겁게 환경관련 문제를 체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센터에서는 각종 환경 강좌 및 관련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환경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환경학습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자연체험관찰원」도 있어 자연이나 생물 관찰을 통해 자연환경의 중요성이나 자연생태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ww.city.osaka.jp/toshikankyo/contents/11new/new05.htm](http://www.city.osaka.jp/toshikankyo/contents/11new/new05.htm))

### 6] IT를 이용해 버스승객서비스 강화 (동경)

일본 東京都 東急버스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해 버스승객서비스를 강화해 가고 있다. 東急버스는 東京都 메구로(目黒)구와 세타가야(世田谷)구를 연결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버스의 위치정보나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대형액정을 버스의 운전석 뒤쪽과 내리는 문 쪽에 설치하고, 화상정보와 함께 목적지별로 전철 환승시각을 알려줄 계획이다. 이밖에 가까운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면 집 전화나 휴대전화에 이메일이나 착신음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외출신호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버스승객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서비스는 기존의 버스에 전지역위치추정 시스템(GPS) 계측기를 설치하고, NTT도코모의 바케트통신을 통해 정보를 송신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GPS와 메모리 등을 갖춘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공회전 상태 등의 정보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운전 차량과 사고빈발 차량을 비교 분석, 최적의 운행기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日本經濟新聞, 7. 4)

### 7 자전거이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자전거친화기업賞」 수여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시는 매년 자전거이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를 선정해 「자전거친화기업賞(Bicycle Friendly Business Awards)」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이 賞은 자전거 안전설비 제공 여부,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여부, 직원 중 자전거 이용자 비율,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처리 빈도 등을 근거로 수상기업 및 단체를 결정한다. 「자전거친화기업賞」은 자전거 주차장賞, 자전거친화적인 교외지역 사업체賞, 자전거통근賞, 소규모기업賞, 대기업賞, 종합최고賞 등 6개 부문에 걸쳐 수여된다. 시는 자전거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 이 賞 외에도 「자전거이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자전거 이용률을 2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민간부문과 함께 하고 있다.

([www.city.toronto.on.ca/cycling/bfba.htm](http://www.city.toronto.on.ca/cycling/bfba.htm))

### 8 자전거이용 장려 위해 무료대여 시행 (프린스턴)

미국 뉴저지州的 프린스턴시는 근거리 이동시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4년 전부터 200여대의 자전거를 민간업체로부터 기부 받아 시내 10곳에 비치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전거 무료대여프로그램은 유럽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미국에서는 프린스턴시를 비롯, 오스틴, 세인트폴, 데이비스, 찰리스트 등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전거를 빌린 시민들이 자전거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프린스턴시에서도 지난 4년간 100여대의 자전거가 분실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 캐나다의 토론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25달러의 회비를 내는 시민들에게만 자전거를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분실률을 감소시키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7. 6)

### 9] 젊은 층의 市政쇄신의견 수렴 위해 「리노베이션팀」 설치 (일본 : 기후市)

일본 기후(岐阜)시는 젊은 시민들의 의견을 市政에 반영하기 위해 20~30대의 직원들로 「리노베이션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市政쇄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팀이 다루어야 할 테마와 팀의 운영방향 및 방식 등을 팀 스스로 결정토록 했다. 15명 내외로 구성될 「리노베이션팀」은 향후 젊은 층의 市政쇄신의견을 시 홈페이지 및 기관지 등을 통해 모어나갈 예정이다.

(아사히신문, 6. 22)

### 영화촬영 지원하는 「동경 로케이션 박스」 개설 (동경)

일본 東京都는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 東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영화나 TV 드라마 촬영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창구인 「동경 로케이션 박스」를 지난 4월 20일 都廳 내에 개설했다. 이는 東京에서의 영화 제작을 보다 수월하게 함으로써 東京을 무대로 하는 영화 작품이 늘어나도록 해 東京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이며, 주요 업무는 都內 촬영장소에 관한 정보 제공, 都營시설 촬영에 관한 상담, 都營시설의 촬영허가 신청 접수 및 조정, 경찰서 및 소방서에 대한 촬영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이다.

([www.seikatubunka.metro.tokyo.jp/tlb.htm](http://www.seikatubunka.metro.tokyo.jp/tlb.htm))

### 공공시설 순회 「동전 한낮 버스」 운행 (일본 : 아이치縣 한다市)

일본 아이치(愛知)현 한다(半田)시는 7월 20일부터 시청을 기점으로 시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100엔으로 순회할 수 있는 「동전 한낮 버스」를 운행한다. 이 버스는 교외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을 순회하게 되는데, 고령자나 신체장애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까지 시험 운행한 후 이용실적에 근거, 시민위원회에서 노선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순회버스는 버스특별승차증을 소지한 미취학아동과 장애인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버스노선은 시청 앞에서 출발하여 시가지 근교를 시계 방향으로 일주하는 15km(31개 정류장) 코스이며, 총 9편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시가 민간버스업체에 위탁해 운행하고 있는 이 순회버스는 차체에 「공공시설 순회버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아사히신문 나고야版, 7. 3)

### 「청소년주간」 행사 개최 (뉴욕)

미국 뉴욕시는 「청소년주간 2001(Youthweek 2001)」 행사를 지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와 자치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로서, 시 청소년 및 지역사회개발국이 주관했다.

이 행사는 자연환경 탐사, 대학·직업 상담, 건강·체육 프로그램 실시, 뮤직 비디오 제작, 동네 청소, 나무심기를 통한 지역환경 가꾸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 「청소년주간」 동안 시 전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와 학습의 마당이 되었다.

([www.nyc.gov/html/dycd/html/youthweek.html](http://www.nyc.gov/html/dycd/html/youthweek.html))

### 서울의 사무실 임대료 '세계 9위' 기록 (서울) - '도시관리'로 변경

서울의 사무실 임대료가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미국의 세계적 부동산회사인 CB Richard Ellis가 세계 154개 주요 도시들의 사무실 임대료를 비교 조사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빌딩 임대료는 연평균 m<sup>2</sup>당 671.8달러(평당 약 287만8천원\*)로, 세계 154개 도시 중에서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아시아권 도시와 비교해보면, 東京의 42%, 홍콩의 68% 수준으로 서울은 이들 도시보다 낮고, 베이징과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각각 50%,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ea Herald, 7. 30)

####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무실 임대료 현황>

순위	도시(지역)	연평균 임대료		전년대비 변동률(%)	평균임대차 계약기간(년)
		m <sup>2</sup> 기준(달러)	평(坪) 기준 원*		
1	런던	1,689	7,245,000	18.9	10~15
2	동경	1,583	6,791,000	0.1	5~10
3	홍콩	992	4,255,000	31.0	3 또는 6
4	새너제이(실리콘밸리)	942	4,041,180	93.9	5
5	파리	908	3,895,000	34.8	3, 6, 9
6	샌프란시스코	764	3,277,000	43.9	5
7	뉴욕 (Midtown Manhattan)	696	2,985,000	15.1	5
8	모스크바	671	2,878,000	-7.3	1~5
<b>9</b>	<b>서울</b>	<b>671</b>	<b>2,878,000</b>	<b>-4.6</b>	<b>1</b>
10	보스턴	596	2,556,000	18.2	5
11	스톡홀름	579	2,483,000	16.6	3
12	싱가포르	559	2,398,000	31.6	3
13	부에노스아이레스	540	2,316,000	0	5
14	취리히	536	2,299,000	6.2	5
15	타이베이	521	2,235,000	-2.5	3~5
16	마드리드	520	2,230,000	27.0	3~10
17	뉴욕 (Downtown Manhattan)	508	2,179,000	18.3	5
18	워싱턴 D.C.	487	2,089,000	7.9	5
19	뉴델리	478	2,050,000	-7.0	5
20	제네바	476	2,042,000	0.7	5

\*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1달러당 1,300원으로 해 원화로 환산(대략적인 금액임)

## ④ 오토바이 폭주족 현장검거 위해 「대책실」 설치 (일본 : 기후縣)

일본 기후(岐阜)현은 일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습격하는 등 점점 난폭해지고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폭주족 대책실」을 지난 4월 19일 설치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이 대책실은 오토바이의 뒷바퀴에 끈을 휘감아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후 폭주족을 검거하는 등 폭주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이전에는 폭주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증거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폭주족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600여건이 제기되는 등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주민들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함에 따라, 폭주족에 대한 대책을 현장검거 위주로 전환하게 되었다.

(아사히신문, 4. 20)